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궤적 유형화: 유형 예측요인과 유형별 심리·사회적응

은선민* · 이수현** · 이강이***

초 록

국내 다문화 청소년은 지속적인 증가 추이에 있으며,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서 통합적인 탐색의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 궤적을 유형화하고, 이를 예측하는 스트레스 조절 자원으로서 이중문화 수용태도, 사회적 지지, 자존감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유형에 따라 우울,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이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 2, 3, 4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1학년 시기 다문화 청소년 1,376명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먼저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 궤적을 유형화하였으며,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스트레스 조절 자원의 유형 예측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스트레스 변화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결과 요인이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유형은 증가형, 감소형, 하위유지형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초등학교 5학년 시기 스트레스 조절 자원 중 가족지지, 친구지지, 자존감이 증가형 및 감소형에 비해 하위유지형을 예측하였다. 셋째,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유형에 따라 중학교 1학년 시기 우울,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발달적 특성과 개인차를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문화적응 스트레스, 다문화 청소년, 스트레스 과정 모델, 잠재계층성장분석, 다문화청소년패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교신저자, gomshawn2@naver.com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I. 서 론

2017년 국내 다문화 초중고생은 10만 9천명으로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3% 증가한 수치이다(통계청, 2018). 전체 학생 수와 학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 반면, 다문화 학생은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통계청, 2018)은, 국내 학령 인구 중 다문화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현재 다문화 학생 중 초등학교가 다수(75.7%)를 차지하고 있으며(통계청, 2018) 이들이 순차적으로 중,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임을 고려하면, 다문화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 통합과 발전의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적응은 다문화 청소년이 마주하는 주요 과업이다. 문화적응의 의미는 본디 서로 다른 문화 경향이 지속적인 접촉을 거치며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호 반응을 포괄한다(Berry, 1997). 그러나 현재 국내의 상황이 이민자에게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와 사회로의 순응을 요구하는 입장에 가깝다는 것을 고려하면(노하나, 2007)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로서의 다문화 청소년이 마주하는 문화적응은 다수 집단에 수용 받는다는 동화의 개념(Teske & Nelson, 1974)과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다. 즉, 국내의 다문화 청소년은 이민해 온 소수로서 다수 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 준거 집단의 규준과 가치를 수용해나가는 문화 접변(Hurh & Kim, 1984)의 과업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이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동 반응은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이다(Berry, 1976).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새로운 문화로 적응하고자 할 때 개인 또는 집단이 경험하는 긴장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Hovey & Magana, 2002). 대부분의 이주자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함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Snyder, 1987; Hovey & Magana, 2002), 이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일상적인 생활사건에서 경험하는 독특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Thomas & Choi, 2006).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가 동반하는 자기정체감 형성 및 역할 갈등 등의 문제와 이로 인한 심리적 취약성(김경미, 2014)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맞물리면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강화, 배은경, 2018; 김순규, 2011).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 청소년은 심리사회적 이중고에 처한 인구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으로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실제로 청소년기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내재화 문제(이수연, 2009), 학교적응(전병주, 2012; 전수정, 윤혜미, 2013), 자존감(이수연, 2009),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적응(김은경, 김종남, 2016) 등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이나 경험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Tartakovsky, 2007), 단일 시점에서의 스트레스 수준보다는 시간에 따른 발달 양상이 개인의 특성을 더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를 통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궤적은 일치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U자 형태(Phinney, Horenczyk, Liebkind & Vedder, 2001),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Tartakovsky, 2007),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봉초운, 정윤화, 홍세희, 2019; Ying, 2005) 등으로 불일치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궤적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개인이 처한 상황과 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궤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궤적으로 전체 표본을 설명하려 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수 중심(variable-centered) 접근은 주어진 표본을 동질적 집단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개인차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뿐더러, 다문화 표본을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는 균질적인 집단으로 바라봄으로써 차별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청소년을 포함하여 이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 궤적에서 개인차를 반영하여 탐색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봉초운, 정윤화와 홍세희(2018)는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종단적인 변화에서 개인별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표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양상은 동일한 형태의 궤적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양상을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발달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대상-중심(person-centered) 접근을 바탕으로(정익중, 2001) 표본을 설명하는 복수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발달 궤적이 있을 수 있음을 상정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함의를 얻기 위해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예측 요인과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심리 사회적 적응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 과정 모델(Pearlin, 1999)은 스트레스원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 스트레스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김희정, 2000). 이 모델에 따르면,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현상은 1차 스트레스원(primary stressor), 스트레스 조절 자원(moderating resources), 그리고 심리적 건강 결과(mental health outcomes) 간의 상호작용과 이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and economic statuses)의 역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다문화 청소년의 상황에 적용하여 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1차 스트레스원은 이들이 처한 소수자로서의 입장과 문화적응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차 스트레스원의 결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이 보유한 스트레스 조절 자원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일한 다문화 상황이라도 다양한 스트레스 발달 궤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발달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응 상태는 심리적 건강 결과에 해당한다. Pearlin(1999)의 이론에서는 심리적 건강 결과(mental health outcomes)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실제로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 관심을 갖는 스트레스의 결과는 심리적 적응 뿐 아니라 사회적 적응을 포괄한다(Pearlin, 1999). 이에 이 연구에서도 심리적, 사회적 적응을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포괄적인 용어인 ‘결과 요인(outcomes)’(진혜민, 배성우, 2016)을 사용하고자 한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 제시하는 스트레스 조절 자원은 대처(coping),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자기개념(self-concept)이다(Pearlin, 1999). 대처란 개인이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취하는 행동으로(Pearlin, 1999),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는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태도를 통해 이해해볼 수 있다. 이중문화 수용은 국내의 주류문화인 한국 문화와, 비주류 문화인 외국인 부모 나라의 문화 양쪽에 대한 수용 태도를 의미한다(노충래, 홍진주, 2006). 이러한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소수자로서 주류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긴장 상태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처 양상 중 하나일 것이다.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높은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적응과 연결된다는 선행연구(김승경,

양계민, 2012; 신윤진, 윤창영, 2010)를 고려하면,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발달을 조절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실제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수준 간에는 관련이 있다(이소연, 2018).

한편 또 다른 스트레스 조절 자원인 사회적 지지란 근거리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도구적 지지를 의미한다(Dunst & Trivette, 1990). 다문화 청소년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중요한 타인은 가족, 친구, 교사 등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자원이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민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 왔다(이승중, 1996; Hovey & Magana, 2002; Poyrazli et al., 2004). 특히 다문화 청소년에게 사회적 지지는 유연한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는 보호 요인으로(전병주, 2012; Lakey & Orehek, 2011),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한다(김종국, 조아미, 2008; 봉초운 외, 2018).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 말하는 자기개념이란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다(Pearlin, 1999). 자기개념이 실제로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자기개념에 대한 정의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라는 점에서 자존감(self-esteem)의 개념과 유사하다. 이론적으로 자기에 대한 긍정적 측면의 이해는 자존감과 동일시되기 때문이다(Greenwald et al., 2002).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의 자존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조절 자원으로 기능할 것인데, 실제로 이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자존감의 역할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해 왔다(신혜정 외, 2014; 권복순, 2009; Kim, Hogge & Salvisberg, 2014). 다문화 청소년의 자존감이 학교적응을 돕는다는 것(전수정, 윤혜미, 2013)을 고려하면, 자존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발달 궤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조절 자원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 조절 자원의 영향을 받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발달한 결과로 다문화 청소년은 다양한 결과 요인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결과 요인은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와 삶의 만족감을 의미하며,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는 우울이다(Pearlin, 1999).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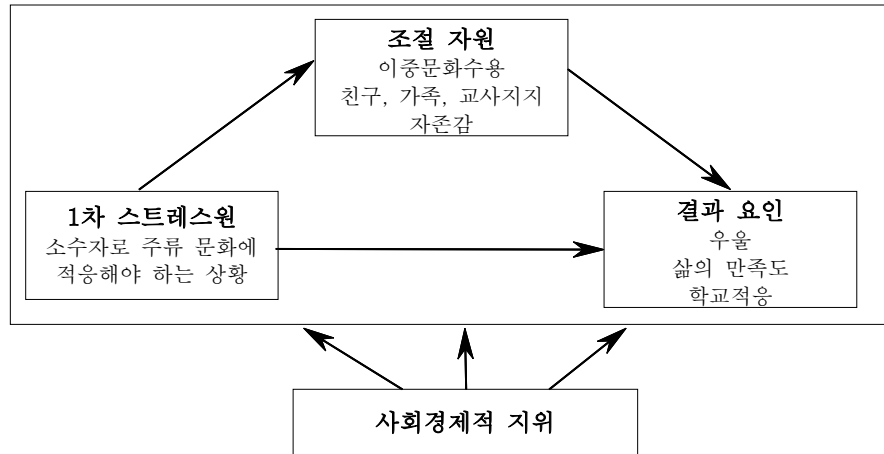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는 직접적인 결과 요인으로서 살필 필요가 있는 주요 변인이다. 경험적으로도 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경수영, 장수미, 2010; 진미경, 조유진, 2011; 한아름, 김여진, 2012) 및 생활만족도(이수연, 2009; 윤명숙, 김남희, 2013; 이솔잎, 김유식, 심상신, 2013)로 연결된다는 보고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접적이고 개인 내적인 심리적 결과에 더하여,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구조 안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결과와 부적응 또한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 관심을 갖는 결과 요인이다(Pearlin, 1999, p. 410). 이와 관련하여 학교 적응은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탐색의 의의가 있다. 다문화 청소년은 비 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박희훈, 오성배, 2014) 학년을 거듭하면서 학교적응의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증가한다(류병란 외, 2012). 학교적응이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이자(강유진, 문재우, 2005;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추후의 적응을 지속적으로 예측하는 요인이라는 점(Wentzel, 2003)을 고려하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발달의 결과로서 탐색할 이론적, 실제적 근거가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1차 스트레스원이 조절 자원을 거쳐 결과 요인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친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된 맥락, 보유한 조절 자원의 맥락을 형성함으로써 스트레스 결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그것이 수반하는 사회적 가치로 인해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스트레스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Pearlin, 1999). 이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이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주며(박은진, 2007; 이윤효, 2007)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문화가정의 심리사회적 적응 전반과도 관련이 있다(강희순, 2010)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조절 자원이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때에는, 이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해야 정확한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요컨대 이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중단적으로 살펴보되, 단일 궤적으로 전체 표본의 변화 궤적을 설명하려고 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를 설명하는 복수의 궤적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처럼 개인차를 반영한 대상 중심적 접근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변화 궤적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변화 추이를 탐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목적이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 과정 모델과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도출한 스트레스 조절 자원(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존감, 사회적지지)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발달 유형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발달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결과 요인(우울,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현상을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적용하여 이론적으로 도식화한 것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이때, 대상 연령 범위는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로 한다. 초기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시작되는 시기로(조아미, 1999) 또래 관계가 특히 중요해진다(유순화, 2008). 이러한 가운데 다문화 청소년은 주류 문화에의 적응과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수용, 정체감 확립의 과제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학교 전이는 특히 많은 환경적 변화를 수반하고 이에 따른 부적응 문제도 다른 시기에 비해 비교적 높을 뿐더러(김대현, 김현주, 2003; Chung, Elias & Schneider, 1998; 유순화, 2007; Roeser, Eccles & Sameroff, 2000), 국내에서 중학교 시기는 학업적인 부담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결과 요인으로서 학교 적응을 살펴보는 것이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1학년 시기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 궤적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2. 초등학교 5학년 시기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 조절 자원(이중문화수용, 사회적지지, 자존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 궤적을 예측하는가?
3. 중학교 1학년 시기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 결과 요인(우울,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 궤적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Note. 이 그림은 Pearlin (1999)이 제시한 도식을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그림 1.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발달에 대한 스트레스 과정 모델의 적용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청소년 패널(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패널은 2011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 총 1,625 가구(청소년 응답자 수 1,639명)를 대상으로 구축된 패널이다. 표본은 다문화 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를 층화임의추출한 뒤 추출된 학교에서는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출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이 연구는 중학교 전이를 경험하는 초기 청소년기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발달을 탐색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5학년 시기~중학교 1학년 시기에 해당하는 2차(2012년), 3차(2013년), 4차(2014)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때 3개 시점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적어도 한 번 이상 응답한 사례만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세 시점 모두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

고하지 않은 사례는 제외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가정환경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현재 국내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형태인 어머니만 외국계인 다문화가정(여성가족부, 2016)의 청소년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즉, 아버지의 출신 국가는 한국이면서 어머니의 출신 국가가 한국이 아닌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별하였다. 결과적으로 1,639명의 응답자 중 1,376명의 청소년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 청소년의 성별은 남자가 676명(49.2%), 여자가 698명(50.8%)으로 유사한 성비를 보였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 어머니의 출신국가는 일본이 494명(36.0%)으로 가장 높았고, 중국(조선족, 한족, 기타민족)이 372명(27.1%), 필리핀이 346명(25.2%)로 그 뒤를 이었다. 부모님의 평균 연령은 2012년 기준으로 어머니가 41.5세, 아버지가 47.3세였다.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전문대 및 4년제 포함)이 47.3%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은 42.9%, 중학교 졸업 이하는 9.8%였다. 아버지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3.0%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졸업 이하는 28.5%, 대학교 졸업 이상은 18.5%였다. 월 평균 소득 수준은 2012년 기준으로 222.6만원($SD=102.0$)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초·중 전환기 시기에 나타나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궤적을 살펴보기 위하여 2, 3, 4차년도에 수집된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변화궤적 유형에 대한 스트레스 조절 자원으로 2차년도(초등학교 5학년)에 응답한 이중문화 수용 태도, 사회적 지지(가족, 교사, 친구), 자존감 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결과 요인으로 4차년도(중학교 1학년)에 응답한 우울, 생활만족도, 학교적응 변수를 사용하였다.

1)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홍진주(2004)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원척도는 Padilla et al.(1985)의 청소년용 THE SAFE (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Acculturative Stress) 척도로, 6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16문항으로 구성된 축약판(Mena et al., 1987; Hovey & King, 1996)을 노충래(2000)가 번안, 수정한 것을 홍진주(2004)가 10문항으로 다시 수정, 축약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청소년의 사회적, 태도적, 가족적, 환경적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형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로 평정한다. 문항의 예시를 살펴보면, “외국인 부모님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주변에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스트레스를 준다.”, “외국인 부모님이 외국인이라고 친구들이 따돌린다.”등이며 1개의 역코딩 문항(“외국인 부모님 나라보다 한국에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을 포함하고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분석에는 10개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77(2차년도), .78(3차년도), .74(4차년도)로 나타났다.

2) 이중문화 수용태도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노충래, 홍진주(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다문화 청소년 패널 연구 연구진에서 수정, 개발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중문화 수용태도 척도는 총 10개 문항을 통하여 한국과 외국인 부모님 나라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문항의 예시는 “외국인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및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와 같다. 4점 Likert 형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로 평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에는 5개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73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Dubow와 U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평가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I])를 수정·보완한 한미현(1996)의 척도를 다문화 청소년 패널 연구 연구진이 축약, 재수정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가족지지(7문항), 친구지지(7문항), 교사지지(6문항) 등 세 개의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된

다. 하위요인별로 문항 예시를 살펴보면, 가족지지는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우리 가족은 내가 힘들어할 때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다.”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친구지지는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를 위로/격려해준다.”, “나를 잘 이해해준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교사지지는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해주시다.”,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시다.”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가족지지는 4점 Likert 형 척도,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는 5점 Likert 형 척도로 평정되며 하위요인별 문항 평균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가족지지가 .94, 친구지지가 .96, 교사지지가 .95였다.

4) 자존감

자존감은 박난숙, 오경자(1992)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다문화 청소년 패널연구진이 4문항으로 축약, 수정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 예시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등이며 4점 Likert 형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분석에는 문항 평균을 사용하였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79였다.

5)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정화실(1991)의 학교생활적응 척도 중에서 학교행사 관련 문항을 제외하여 수정보완한 김지경 외(2010)의 학교적응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학습활동(5문항), 교우관계(5문항), 교사관계(5문항)의 세 개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15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요인의 문항 예시를 살펴보면, 학습활동은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모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교우관계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놀이나 모든 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 교사관계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응답은 4점 Likert 형(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 [4점])으로 평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의 적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에는 하위요인별 문항 평균 및 총 평균을 활용하였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학습활동이 .77, 교우관계가 .60, 교사관계가 .89로 나타났다. 학교 적응 전체 문항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6) 우울

우울은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외, 1984)에서 우울을 측정하는 13문항을 수정, 축약한 이경상 외(2011)의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문항 예시는 “나는 걱정이 많다.”, “나는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등이며 4점 Likert 형(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분석에는 문항 평균을 사용하였다. 우울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2였다.

7)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김신영 외(2006)의 문항을 수정한 김지경 외(2010)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행복감을 측정하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사는 게 즐겁다.”,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이다. 응답은 4점 Likert 형(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에는 문항 평균을 활용하였으며,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8) 사회경제적 배경

이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발달궤적의 예측 요인 분석 시 통제변수로 사용한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는 2차년도(2012년)에 부모가 보고한 월 평균 가구소득과 부모 학력이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만원 단위로 개방형으로 응답한 값을 사용하였다(예: “300”이라고 응답한 경우, 월 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부모 학력은 1=“안 받았음”,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대학교(4년제 미만)”, 6=“대학교(4년제 이

상”, 7=“대학원 석사과정”, 8=“대학원 박사과정”의 8개 범주를 갖는 서열 척도로 측정하였다. 어머니의 국적은 어머니의 국적은 “중국(한족, 기타민족)”, “중국(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기타” 등 21개 범주로 측정하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먼저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요변수 간의 관계 및 전반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궤적을 유형화하여 연구대상을 이질적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잠재계층성장분석은 개인별 응답 패턴을 바탕으로 응답자를 유형화하는 대상-중심적 분석으로(Jung & Wickrama, 2008), 시간에 흐름에 따라 주어진 변수에서 유사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 개인들을 서로 구분되는 하위집단으로 묶어준다(Andruff et al., 2009). 이는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의 한 유형으로, 성장 모수의 계층 내 분산을 0으로 고정하여 계층 변수로만 성장 모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모델이다(Jung & Wickrama, 2008). 계층 내 분산을 0으로 고정하는 것은 철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통계적인 선택인데(Muthén, 2006), 계층 내 성장 모수의 분산을 모두 따로 추정하는 것에 비해 계산의 작업량이 훨씬 적고 모형 수렴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Kreuter & Muthén, 2007; Jung & Wickrama, 2008).

계층의 수를 결정할 때에는 선행연구의 제언에 따라 AIC, BIC, SSBIC 등의 정보준거지수와 엔트로피 지수, LMR-LRT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Jung & Wickrama, 2008). 정보준거지수는 그 값이 낮을수록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엔트로피 지수는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Collins & Lanza, 2010). LMR-LRT 검정에서 유의한 p값이 보고될 경우, 이는 k-1개의 계층보다 k개의 계층이 주어진 자료를 유의하게 더 잘 설명함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계층 결정 시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 각 계층 중 관측 빈도가 전체 표본의 1% 미만인 경우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Jung & Wickrama, 2008).

잠재계층성장분석으로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궤적의 유

형을 결정한 뒤에는, 스트레스 조절 자원이 분류된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을 예측하는지 확인하며 이때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통제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유형에 대한 스트레스 조절 자원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은 다음의 로짓 곡선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분석하였다.

Logit(p : Y_i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유형)

$$= \beta_0 + \beta_1 \text{소득}_i + \beta_2 \text{부학력}_i + \beta_3 \text{모학력}_i + \beta_4 \text{이중문화수용태도}_i + \beta_5 \text{자존감}_i \\ + \beta_6 \text{가족지지}_i + \beta_7 \text{친구지지}_i + \beta_8 \text{교사지지}_i$$

여기서 종속변수는 응답자 i 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유형의 로짓이다. 소득, 부학력, 모학력은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로, 통제변수에 해당한다. 이중문화수용태도, 자존감과 세 종류의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교사)는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 조절 자원이며 독립변수에 해당한다. 이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잠재계층성장분석에서 나타난 유형의 수 만큼의 범주를 갖는데, 이 연구에서 유형의 수는 3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특정 유형에 속할 승산을 그렇지 않을 승산과 비교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각 유형별로 실시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주로 준거집단으로 삼을 집단이 없을 경우 준거집단과 비교하지 않고 특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된다(전상민, 2016; 최금옥, 2011; 반정호, 김경휘, 2008; 정영숙, 2000).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준거 집단으로서 비교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집단이 도출되어, 하나의 준거집단을 기준으로 두고, 준거집단보다 비교집단에 속하게 될 승산의 비를 통해 예측요인의 역할을 설명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노보람, 박새롬, 최나야, 박혜준, 2018). β_1 - β_8 은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y 의 로짓 변화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다 직관적인 이해를 위하여 각 유형별 비교에서 승산비(Odds ratio)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별로 스트레스 결과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차이가 유의한 경우 차이의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Scheffé 사후분석을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에는 SPSS 20.0과 Mplus 7.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전반적 양상 및 상관관계

주요변수의 전반적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평균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초등학교 5학년($M=1.44$), 초등학교 6학년($M=1.42$), 중학교 1학년($M=1.38$) 시기를 거치면서 약간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초등학교 5학년 시기 스트레스 조절 자원을 살펴보면,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90점($SD=0.40$)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가족지지가 4점 만점에 3.23점($SD=0.56$), 친구지지가 5점 만점에 평균 3.89점($SD=0.84$), 교사지지가 5점 만점에 평균 3.65점($SD=0.90$)으로 나타나 모두 중간값보다 다소 높았다. 이 시기 자존감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3.17점($SD=0.54$)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스트레스 결과 요인을 살펴본 결과, 학교적응의 경우 학업수행의 평균 점수가 2.88($SD=0.53$), 교우관계의 평균 점수가 3.18($SD=0.41$), 교사관계의 평균 점수가 3.11($SD=0.57$)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이 지각한 친구 및 교사와 맺는 관계에서의 적응과 비교하여 학업수행의 영역에서 지각하는 적응 수준이 다소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울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1.65점($SD=0.54$), 삶의 만족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22점($SD=0.59$)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청소년의 중학교 1학년 시기 정신적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여졌다. 각 변수의 척도와 왜도의 절대값은 자료의 정규성을 가정하고 통계 분석을 실시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주요 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3개년도에 걸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조절 자원 및 긍정적인 결과 요인과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부정적인 결과 요인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조절 자원과 관련하여,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이후 3개년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았으며($r=-.23, -.12, -.10; p<.001$), 모든 종류의 사회적 지지는 3개년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r=-.12\sim-.32; p<.001$). 또한 초등학교 5학년 시기 자존감이 높을수록 3년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았다($r=-.35, -.20, -.19, p<.001$).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스트레스 결과 요인과 관련하여, 이전 3년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전반적인 학교적응수준이 낮았고($r=-.20, -.18, -.32; p<.001$), 우울이 높았으며($r=.19, .23, .33; p<.001$), 삶의 만족도는 낮았다($r=0.20, -.22, -.31; p<.001$).

표 1

주요변수의 전반적 양상

	측정변인	점수 범위	<i>M</i>	<i>SD</i>	skewness	kurtosis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초5)	1-4	1.44	0.36	1.33	1.91
	문화적응 스트레스(초6)	1-4	1.42	0.37	1.45	2.24
	문화적응 스트레스(중1)	1-4	1.38	0.31	1.10	2.11
스트레스 조절 자원 (초5)	이중문화 수용	1-4	2.90	0.40	0.06	0.72
	사회적지지(가족)	1-4	3.23	0.56	-0.52	0.92
	사회적지지(친구)	1-5	3.89	0.84	-0.53	0.07
	사회적지지(교사)	1-5	3.65	0.90	-0.26	-0.33
	자존감	1-4	3.17	0.54	-0.22	-0.30
스트레스 결과 요인 (중1)	학교적응-학업수행	1-4	2.88	0.53	-0.08	0.15
	학교적응-교우관계	1-4	3.18	0.41	0.02	0.01
	학교적응-교사관계	1-4	3.11	0.57	-0.24	0.35
	우울	1-4	1.65	0.54	0.51	-0.44
	삶의 만족도	1-4	3.22	0.59	-0.37	0.14

표 2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문화적응 스트레스(초5)	—													
2. 문화적응 스트레스(초6)	.34***	—												
3. 문화적응 스트레스(중1)	.24***	.34***	—											
4. 이중문화 수용(초5)	-.23***	-.12***	-.10***	—										
5. 가족지지(초5)	-.15***	-.27***	-.19***	.21***	—									
6. 친구지지(초5)	-.32***	-.22***	-.19***	.38***	.24***	—								
7. 교사지지(초5)	-.24***	-.14***	-.12***	.37***	.23***	-.56***	—							
8. 자존감(초5)	-.35***	-.20***	-.19***	.48***	.23***	.52***	.47***	—						
9. 학교적응 전체(중1)	-.20***	-.18***	-.32***	.24***	.34***	.35***	.30***	.34***	—					
10. 학업수행(중1)	-.16***	-.16***	-.27***	.19***	.30***	.30***	.24***	.30***	.83***	—				
11. 교우관계(중1)	-.22***	-.22***	-.34***	.22***	.29***	.35***	.26***	.30***	.50***	.56***	—			
12. 교사관계(중1)	-.12***	-.08**	-.20***	.17***	.25***	.21***	.23***	.41***	.81***	.46***	.48***	—		
13. 우울(중1)	.19***	.23***	.33***	-.13***	-.30***	-.23**	-.18***	-.21***	-.50***	-.45***	-.45***	-.34***	—	
14. 삶의만족도(중1)	-.20***	-.22***	-.31***	.18***	.31***	.27***	.17***	.28***	.57***	.45***	.51***	.44***	-.64***	—

Note. *** $p < .001$. ** $p < .01$. * $p < .05$.

1-3:문화적응 스트레스; 4-8: 스트레스 조절 자원; 9-14: 스트레스 결과 요인.

2.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궤적의 유형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바탕으로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3계층 모형의 정보준거지수가 가장 낮았고, 엔트로피 지수가 .87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며, LMR-LRT 검정 결과가 유의하였다(LMR-LRT=187.38; $p<.01$). 반면 계층의 수를 4계층으로 증가시켰을 때 모든 정보준거지수가 다시 증가하여 3계층 모형에 비해 자료를 적합하고 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두 번째 계층의 관측 빈도가 0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분류의 의미가 없었다. 이에 최종적으로 3계층 모형이 선정되었다.

유형별로 추정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표 4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그림 2와 같다. 계층 1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 시기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초기치가 중간 수준이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유형으로, “증가형”이라 명명하였다. 반면 계층 2는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는 가장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이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유형으로, “감소형”이라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층 3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3개년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유형으로, “하위 유지형”이라 명명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모든 시점에서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가 유의하였다($F=662.55, 186.91, 1140.63$; $p<.001$). Scheffe의 방법으로 $p<.05$ 수준에서 사후검증한 결과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는 세 유형이 모두 서로 다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는 증가형과 감소형이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고 이에 비해 하위유지형의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았다.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감소형과 하위유지형이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으며 이에 비해 증가형이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증가형과 감소형의 양상을 비교하여 보면,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는 감소형이 증가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이다가 초등학교 6학년 시기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이후 교차하여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증가형의 스트레스가 높고 감소형은 하위유지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양상이라 볼 수 있다.

표 3

잠재계층성장 분석의 적합도 지수 및 분류율

모형	AIC	BIC	SSBIC	Entropy	LMR	LRT	Class counts (proportion)			
							1	2	3	4
1계층	2802.43	2828.58	2812.68				1376 (1.00)			
2계층	2163.20	2205.02	2179.61	.90	616.78***		235 (.17)	1141 (.83)		
3계층	1961.67	2019.16	1984.22	.87	198.39**		169 (.12)	135 (.10)	1072 (.78)	
4계층	1967.67	2040.85	1996.37	.89	223.86***		1072 (.78)	0 (.00)	169 (.12)	135 (.10)

*** $p < .001$.

표 4

잠재계층 별 평균 성장요인의 모수 추정치

계층	n (%)	초기치		변화율		유형 구분
		<i>M</i>	<i>SE</i>	<i>M</i>	<i>SE</i>	
Class 1	162 (12.0)	1.62***	0.05	0.19***	0.02	증가형
Class 2	138 (10.1)	2.09***	0.04	-0.39***	0.02	감소형
Class 3	1,062 (77.9)	1.33***	0.01	-0.03**	0.01	하위유지형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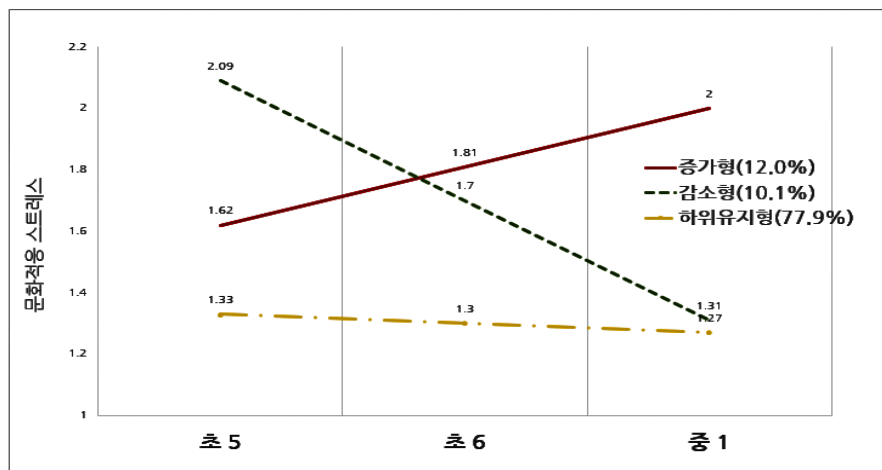


그림 2. 초기 청소년기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의 잠재 유형

3. 스트레스 조절 자원의 유형 예측 가능성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1차 스트레스원을 보유한 다문화 청소년이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발달을 경험하는 원인으로 스트레스 조절 자원의 역할을 탐색한다. 스트레스 조절 자원을 독립변수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유형을 종속변수로 하여 실시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chi^2=175.087$ ($p<.001$), Pseudo $R^2=.17$ 로 나타났다. “하위유지형”에 비해 “증가형”에 속할 승산과 관련하여, 자존감($OR=0.46$, $p<.001$), 가족지지($OR=0.68$, $p<.05$), 친구지지($OR=0.53$, $p<.001$)가 모두 유의한 음의 계수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5학년 시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존감과 지각한 가족,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하위유지형”에 비해 “증가형”에 속할 승산이 낮아짐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비교집단인 “감소형”에 속할 승산과 관련해서는 자존감($OR=.30$, $p<.001$)과 친구지지($OR=.75$, $p<.05$)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존감이 높고, 높은 친구의 지지를 경험할수록 하위유지형에 비해 감소형에 속할 승산인 낮음을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부의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하위유지형에 비해 초기에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보이는 감소형에 속할 승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소형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증가형에 속할 승산을 확인한 결과, $p<.05$ 수준에서 모든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독립변수로 사용한 스트레스 조절 자원이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보고이고, 감소형에 비해 증가형이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유의하게 낮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조절 자원은 감소형에 비해 증가형을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스트레스 조절 자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유형 예측 가능성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O.R.	Wald	
준거집단	비교집단						
하위 유지형	증가형	사회경제적 지위	월 평균 소득	-.001	.001	0.999	0.337
			모 학력	.022	.094	1.023	0.056
			부 학력	-0.104	0.088	0.901	1.400
		스트레스 조절 자원	이중문화 수용태도	-0.137	0.260	0.872	0.276
			자존감	-0.777	0.203	0.460	14.694***
			가족지지	-0.388	0.169	0.679	5.266*
			친구지지	-0.637	0.116	0.529	30.213***
			교사지지	0.123	0.119	1.130	1.066
			감소형	사회경제적 지위	월 평균 소득	-0.001	0.001
	모 학력	-0.027			0.105	0.973	0.066
	부 학력	-0.217			0.101	0.805	4.658*
	스트레스 조절 자원	이중문화 수용태도		-0.348	0.289	0.706	1.454
		자존감		-1.192	0.227	0.304	27.471***
		가족지지		-0.144	0.195	0.866	0.546
		친구지지		-0.284	0.132	0.753	4.652*
		교사지지		-0.068	0.132	0.934	0.269
	감소형	증가형	사회경제적 지위	월 평균 소득	0.001	0.001	1.001
모 학력				0.052	0.127	1.053	0.166
부 학력				0.107	0.121	1.113	0.775
스트레스 조절 자원			이중문화 수용태도	0.247	0.346	1.28	0.509
			자존감	0.334	0.279	1.396	1.428
			가족지지	-0.400	0.215	0.670	3.459
			친구지지	-0.070	0.173	0.933	0.163
			교사지지	0.161	0.171	1.175	0.882
			χ^2			175.087***	
Nagelkerke R ²			.17				

*** $p < .001$. * $p < .05$.

Note. 연구 대상 1,376명 중 90명이 2012년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음. 위의 결과는 연구 대상 중 2012년도 응답자 1,286명을 바탕으로 한 결과임; 교차분석 결과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유형과 어머니 출신국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음($\chi^2=20.79$, $p>.05$); 독립변수 간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 일반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하였으나 VIF값이 10 이상인 변수는 없어(VIF=1.091~1.688)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음.

4.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결과 요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유형 간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스트레스 결과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결과 요인에서 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증가형 집단의 청소년이 가장 우울 수준이 높았고, 감소형은 중간 수준이었으며, 하위유지형은 우울 수준이 가장 낮았다($F=62.223$, $p<.001$). 한편 삶의 만족도는 하위유지형이 가장 높았고, 감소형은 중간 수준, 증가형은 가장 낮았다($F=43.003$, $p<.001$).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을 나타내는 학교 적응을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전반적인 학교적응은 증가형이 가장 낮았고, 감소형이 중간 수준이었으며, 하위유지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학교적응을 나타냈다($F=44.479$, $p<.001$). 하위요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수행과 교우관계에서 모두 증가형이 가장 적응 수준이 낮았고, 감소형이 중간 수준이었으며, 하위유지형이 가장 높았다($F=31.315$, 51.550 ; $p<.001$). 교사관계는 증가형과 감소형이 유사한 수준이었고, 하위유지형이 이들에 비해 더 높았다($F=16.382$, $p<.001$).

표 6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결과 요인의 차이

결과요인		<i>M(SD)</i>				<i>F</i>	<i>Scheffé</i>
		증가형(a) <i>n</i> =167	감소형(b) <i>n</i> =118	하위유지형(c) <i>n</i> =967	전체		
심리적 적응	우울	2.02 (.52)	1.79 (.55)	1.56 (.02)	1.65 (.54)	62.223***	a>b<c
	삶의 만족도	2.87 (.56)	3.08 (.59)	3.30 (.57)	3.22 (.59)	43.003***	a<b<c
사회적 적응 (학교적응)	학업수행	2.51 (.45)	2.81 (.47)	2.94 (.53)	2.88 (.53)	31.315***	a<b<c
	교우관계	2.92 (.34)	3.05 (.38)	3.24 (.40)	3.18 (.41)	51.550***	a<b<c
	교사관계	2.91 (.53)	3.01 (.53)	3.16 (.57)	3.11 (.57)	16.382***	a, b<c
	총 평균	2.81 (.34)	2.95 (.38)	3.11 (.41)	3.06 (.41)	44.479***	a<b<c

*** $p<.001$.

Note. 연구 대상 1,376명 중 124명이 2014년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음. 위의 결과는 연구 대상 중 2014년도 응답자 1,252명을 바탕으로 한 결과임.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중학교 전이를 경험하는 초기 청소년기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유형화함으로써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발달 궤적에서 개인차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 스트레스 과정 모델(Pearlin, 1999)을 적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이 보유한 스트레스 조절 자원이 스트레스 변화 유형을 예측하는지 살펴보고, 스트레스의 발달 궤적에 따라 스트레스 결과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때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조절 자원으로는 이중문화수용, 자존감,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았으며, 스트레스 결과 요인으로는 심리적 적응인 우울과 삶의 만족도, 사회적 적응을 나타내는 학교 적응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궤적은 “증가형”, “감소형”, “하위유지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증가형”은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는 평균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나타냈지만, 이후 스트레스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가장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고한 집단이다. 이들은 전체 표본의 12.0%를 차지하였다. “감소형”은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가장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지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6학년을 거치면서 점차 감소하다가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낮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고한 집단이다. 이들은 전체 표본의 10.1%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위유지형”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작은 폭으로 스트레스가 감소한 집단으로, 전체 연구대상의 77.9%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하위유지형이 표본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이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Ying, 2005) 및 국내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봉초운 외, 2019)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는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이들 연구에서 도출한 평균화된 단일 궤적에서 더 나아가, 대다수의 하위유지형 청소년과 구분되는 이질적인 두 개의 하위집단(감소형 및 증가형)을 구분해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를 확장한다.

둘째, 초등학교 5학년 시기 다문화 청소년이 보유한 스트레스 조절 자원은 이후의 스트레스 변화 유형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개인의 자존감과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하위유지형” 문화적응 스트레스 발달을 예측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증가형 및 감소형에 비해 하위유지형 발달 유형을 예측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가 유연한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고(Lakey & Orehek, 2011)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는 선행연구(김종국, 조아미, 2008; 봉초운 외, 2018)와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한 사회적 지지 중 교사 지지는 유의한 예측력이 없었고, 가족과 친구의 사회적 지지만이 긍정적인 발달 궤적을 예측하였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자원 중에서도 교사보다는 가족과 또래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은 개인에게 가장 친밀하고 밀접한 미시체계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위기와 관련해서도 핵심적인 완충 역할을 했을 것이다. 또한 초기 청소년기가 또래 수용이 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시기라는 점을 생각하면(유순화, 2008), 친구로부터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 및 또래집단 수용은 국내 다문화 청소년이 직면한 문화적응 및 이로 인한 긴장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다문화 청소년의 자존감은 여러 조절 자원 중에서도 긍정적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유형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높은 변수였다. 즉, 초등학교 5학년 시기 자존감은 이후 3년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하위유지형에 속할 승산을 높이는 주요한 변수였다. 이는 자존감이 이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한다고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신혜정 외, 2014; 권복순, 2009; Kim et al., 2014)와 일치하는 결과로, 이 연구의 결과는 국내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존감의 역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를 확장한다. 또한 개인의 긍정적 자기개념이 스트레스 조절 자원으로 기능한다는 이론적 기제(Pearlin, 1999)를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처럼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발달 유형에 대한 다양한 스트레스 조절 자원의 예측력을 확인한 것은,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지지(김종국, 조아미, 2008; 봉초운 외, 2018)와 자존감(신혜정 외, 2014; 권복순, 2009; Kim et al., 2014)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이들 선행연구와는 달리 종속변수를 횡단적 시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으로 두지 않고 종단적인 스트레스 변화 양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초기에 경험한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의 영향이 오랜 시간에 걸쳐 상당히 강건하게 지속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한 스트레스 조절 자원 중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발달 궤적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 시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중문화 수용태도 변화 궤적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소연, 2008)와는 대조적이다. 이 연구와 달리 이소연(2008)의 연구에서는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변화궤적을 종속변수로 두고, 초기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변화 궤적을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를 이 연구의 결과와 종합하여 보면,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결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발달 유형이 나타난다기보다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스트레스 조절 자원 중에서도 대처(coping)의 대표적인 양상으로 스트레스의 발달을 예측할 것이라는 이 연구의 가설과는 반대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오히려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선행요인으로서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저해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이중문화 수용태도 간의 선후관계는 추후 연구에서 보다 면밀한 인과모형의 설계를 통해 검증해야 할 연구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 연구에서 설정한 스트레스 조절 자원은 하위유지형을 일관적으로 예측할 뿐, 증가형과 감소형을 구분해내지는 못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시기 감소형이 증가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5학년 시기 측정된 스트레스 조절 자원은 두 집단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증가형이 초등학교 5학년 시기 감소형에 비해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인다 할지라도 감소형과 유사하게 심리사회적 자원이 비교적 적은 인구임을 의미한다.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초기에 스트레스를 비교적 적게, 또는 중간 수준으로 경험하더라도 스트레스 조절 자원이 결핍될 경우 이후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증가되는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할 것이다. 또한 추후의 발달 양상을 고려하면, 증가형은 초기에 그 스트레스 수준이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감소형에 비해 더욱 개입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는

특히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 뿐 아니라 중간 수준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집단에게도 스트레스 조절 자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결과 요인에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시기 심리적 적응 상태를 나타내는 우울과 삶의 만족도, 사회적 적응 상태를 나타내는 학교 적응의 각 하위요인에서 교사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세 유형이 서로 구분되었다. 즉, 하위유지형은 가장 낮은 수준의 우울과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을 나타냈다. 감소형은 중간 수준의 우울,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을 보였다. 증가형은 가장 높은 수준의 우울과 가장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 및 학교적응을 보였다. 단, 교사 관계에 있어서는 증가형과 감소형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들은 모두 하위유지형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의 교사 관계 적응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기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발달 궤적이 이후의 학교적응을 예측함을 확인한 것으로서,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간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김준범, 박성훈, 2018; 전수정, 윤혜미, 2013; 최윤미, 임성택, 2012)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감소형과 하위유지형 간 중학교 1학년 시기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서로 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변수에서 두 집단이 구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횡단적 시점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이 다르지 않더라도 이전의 스트레스 발달 궤적에 의해 해당 시점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위유지형의 대다수 청소년과 비교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에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한 다문화 청소년은, 중학교 입학 후 스트레스가 완화되더라도 여전히 우울, 삶의 만족도, 학교 적응의 측면에서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발달 궤적이 횡단면적 스트레스 수준과는 비교적 무관하게 차후의 심리사회적 적응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발달적인 특성을 강조한 선행연구(Tartakovsky, 2007)를 지지, 확장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가 지니고 있는 방법론적, 실제적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 조절 자원의 영향력을 탐색할 때에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응답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종단적인 영향력 검증에 한계가 있다. 종속변수로 시간에 따른 변화 유형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비교적 강건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종단적인 영향력을 보다 강력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일 시점이 아닌 여러 시점의 스트레스 조절 자원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여러 시점의 스트레스 조절 자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유형 중 증가형과 감소형을 구분하는 스트레스 조절 자원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중학교 전이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집단과 증가하는 집단이 이후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분하는 조절 자원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주된 한계 중 하나이다. 초기에 나타나던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추후 증가하는 유형에 속하게 될지, 감소하는 유형에 속하게 될지를 나누어주는 핵심적인 자원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진다면, 취약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심리사회적 자원을 변수로 활용하여 중학교 전이기에 스트레스 감소 집단과 증가 집단을 선별해주는 예측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초기 청소년기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궤적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통해 다수의 하위유지 집단과 구분되는 이질적인 두 가지 양상의 하위 집단을 구분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균일한 지원보다는 개별 적응 양상을 바탕으로 한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학교급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을 스크리닝하고,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때, 중학교 전이를 앞둔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교 5, 6시기와 중학교 전이를 경험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시기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심리사회적 적응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대다수 하위유지형 청소년과 달리 평균 이상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상을 보이는 청소년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중간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이더라도 심리사회적 자원이 결핍될 경우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초등학교 고학년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종단적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발달 유형에 따라 이후의 심리사회적 적응 상태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발달적 관

점에서의 이해가 중요함을 재조명하였다. 특히 현 시점에서 유사한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전의 발달 궤적에 따라 현재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과 통합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발달적인 관점을 취하여 이들의 문화적응 및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중단적인 발달 궤적을 바탕으로 취약한 집단을 선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발달적 특성과 개인차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적인 심리적 건강을 도모할 뿐 아니라 이들의 학교 부적응과(박희훈, 오성배, 2014) 이로 인한 학업 중단(류병란 외, 2012)을 막고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화, 배은경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2, 131-164.
- 강유진, 문재우 (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6(1), 283-315.
- 강희순 (2010). 대학생의 성별, 학년, 진로의식이 진로개발 준비도 및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실천연구**, 9(3), 83-104.
- 경수원, 장수미 (2010).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과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399-421.
- 권복순 (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doi:10.20970/kasw.2009.61.2.001
- 김경미 (2014).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대현, 김현주 (2003). 입학 초기 중학생의 삶. **교육과정연구**, 21(4), 1-24.
- 김순규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3), 247-272.
- 김승경, 양계민 (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이중 언어요인, 이중문화요인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11), 47-176.
- 김은경, 김종남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다문화교육연구**, 9(4), 21-43. doi:10.14328/MES.2016.12.31.21
- 김종국, 조아미 (2008). 새터민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5(2), 103-119.
- 김준범, 박성훈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자아탄력성의 중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1, 77-100.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연구보고 10-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보람, 박새롬, 최나야, 박혜준 (2018). 일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유형, 예측요인 및 초등학교 적응과의 관계. **유아특수교육연구**, 18(2), 175-201.
- 노충래 (2000). 로즌버그의 자긍심척도와 집단자긍심 척도를 활용한 교포 청소년의

- 심리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0, 107-135.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노하나 (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방란, 김경애, 이재분, 송혜정, 강일국 (2012). **중등교육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난숙, 오경자 (1992). Methylphenidate 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활동아의 인지·행동 및 사회, 학습,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1(1), 235-248.
- 박은진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과 스트레스 그리고 심리적 건강**. 충남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희훈, 오성배 (2014).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 교육문제연구**, 32(2), 35-57.
- 봉초운, 정윤화, 홍세희 (2018).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 감의 종단적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9(3), 41-69. doi:10.14816/sky.2018.29.3.41
- 신윤진, 윤창영 (2010). 기초연구: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적응, 또래관계 및 이중 문화수용 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14(2), 1-14.
- 신혜정, 노충래, 허성희, 김정화 (2015).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7(3), 5-29. doi:10.20970/kasw.2015.67.3.001
-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분석**(과제번호, 2016-03).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유순화 (2008). 중학교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연구**, 15(7), 157-180.
-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청소년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161-180.
- 윤명숙, 김남희 (2013).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및 생활스트레스와 부모 및 친구애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8), 21-47.
-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 (2011).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I 사업보고서**

- (연구보고 11-R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소연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9(1), 179-208. doi:10.14816/sky.2018.29.1.179
- 이슬잎, 김유식, 심상신 (2013). 여가스포츠 참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 및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7(4), 57-72.
- 이수연 (2009).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조기유학생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6, 45-62.
- 이승중 (1996).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윤효 (2007). **베트남 국제결혼가정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사회 자본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수정, 윤혜미 (201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방임,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4, 153-179.
- 전병주 (2012).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및 문화변용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0(11), 29-38.
- 정익중 (2001). 관찰대상중심적(person-centered) 접근을 통한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17(1), 197-218.
- 조아미 (1999).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1), 115-126.
- 진미경, 조유진 (2011).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14(4), 77-89.
- 진혜민, 배성우 (2016). 청소년 자살생각에 관한 메타경로분석-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8(2), 85-113. doi:10.19034/KAYW.2016.18.2.05
- 최윤미, 임성택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관계. **상담평가 연구**, 5, 15-26.
- 통계청 (2018). **2018 청소년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출판 박사학위 청구논문.

한아름, 김여진 (201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 문화적응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3, 75-104.

홍진주 (2004).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 청구논문.

Andruff, H., Carraro, N., Thompson, A., Gaudreau, P., & Louvet, B. (2009). Latent class growth modelling: A tutorial. *Tutorials in Quantitative Methods for Psychology*, 5(1), 11-24.

Berry, J. W. (1976). *Human ecology and cognitive style: Comparative studies in cultura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New York: Sage Publications.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Chung, H., Elias, M., & Schneider, K. (1998). Patterns of individual adjustment changes during middle school transi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6(1), 83-101. doi:10.1016/S0022-4405(97)00051-4

Collins, L. M., & Lanza, S. T.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Vol. 718). Hoboken, NJ: John Wiley & Sons.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52-64. doi:10.1207/s15374424jccp1801_7

Greenwald, A. G., Banaji, M. R., Rudman, L. A., Farnham, S. D., Nosek, B. A., & Mellott, D. S. (2002). A unified theory of implicit attitudes, stereotypes, self-esteem, and self-concept. *Psychological Review*, 109(1), 3-25. doi:10.1037/0033-295X.109.1.3

Hovey, J. D., & King, C. A. (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 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9), 1183-1192. doi:10.1097/00004583-199609000-00016

- Hovey, J. D., & Magaña, C. G. (2002). Exploring the mental health of Mexican migrant farm workers in the Midwest: Psychosocial predic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suggestion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The Journal of Psychology, 136*(5), 493-513. doi:10.1080/00223980209605546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doi:10.1111/j.171-9004.2007.0004.x
- Kim, E., Hogge, I., & Salvisberg, C. (2014). Effects of self-esteem and ethnic identity: Acculturativ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exican immigra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6*(2), 144-163. doi:10.1177/0739986314527733
- Kreuter, F., & Muthén, B. (2008). Analyzing criminal trajectory profiles: Bridging multilevel and group-based approaches using growth mixture modeling.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4*(1), 1-31. doi:10.1007/s10940-007-9036-0
- Lakey, B., & Orehek, E. (2011). Relational regulation theory: A new approach to explain the link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Psychological Review, 118*(3), 1-14. doi:10.1037/a0023477
- Mena, F. J., Padilla, A. M., & Maldonado, M. (1987). Acculturative stress and specific coping strategies among immigrant and later generation college stud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9*(2), 207-225. doi:10.1177/07399863870092006
- Muthén, B. (2006). The potential of growth mixture modelling.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15*(6), 623-625. doi:10.1002/icd.482
- Padilla, A. M., Wagatsuma, Y., & Lindholm, K. J. (1985). Acculturation and personality as predictors of stress in Japanese and Japanese-American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5*(3), 295-305. doi:0.1080/00224545.1985.9922890
- Pearlin, L. I. (1999). The stress process revisited. In C. S. Aneshenzel, & J. C. Phelan (Eds.),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mental health* (pp. 395-415).

- Boston, MA: Springer.
- Phinney, J. S., Horenczyk, G., Liebkind, K., & Vedder, P. (2001). Ethnic identity, immigration, and well-being: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493-510. doi:10.1111/0022-4537.00225
- Poyrazli, S., Kavanaugh, P. R., Baker, A., & Al-Timimi, N. (2004). Social support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acculturative stress i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7(1), 73-82. doi:10.1002/j.2161-1882.2004.tb00261.x
- Roeser, R. W., Eccles, J. S., & Sameroff, A. J. (2000). School as a context of early adolescents' academic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 summary of research finding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0(5), 443-471.
- Snyder, V. N. S. (1987). Factors associated with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married Mexican immigrant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1(4), 475-488. doi:10.1111/j.1471-6402.1987.tb00919.x
- Tartakovsky, E. (2007). A longitudinal study of acculturative stress and homesickness: High-school adolescents immigrating from Russia and Ukraine to Israel without parent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2(6), 485-494. doi:10.1007/s00127-007-0184-1
- Teske Jr, R. H., & Nelson, B. H. (1974). Acculturation and assimilation: A clarification. *American Ethnologist*, 1(2), 351-367. doi:10.1525/ae.1974.1.2.02a00090
- Thomas, M., & Choi, J. B. (2006).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among Korean and Indian Immigrant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33(2), 123-143.
- Wentzel, K. R. (2003). School adjustment. In W. M. Reynolds, & G. J. Miller (Eds.), *Handbook of Psychology* (Vol. 7). *Educational psychology* (pp. 235-258). Hoboken, NJ: John Wiley & Sons. doi:10.1002/0471264385.wei0711
- Ying, Y. W. (2005). Variation in acculturative stressors over time: A study of Taiwanes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1), 59-71. doi:10.1016/j.ijintrel.2005.04.003

ABSTRACT

Acculturative stress amongst multicultural adolescents: Patterns, predictors, and psychosocial outcomes

Eun, Sunmin* · Lee, Suhyun* · Lee, Kangyi*

The number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backgrounds have been constantly increasing, and studies have shown that their acculturative stress highly affects their psychosocial development. This study aims to tap into the individual differences and find the relevant patterns in developing acculturative stress during early adolescence. Based on the stress process model, we explored the influence of moderating resources including bicultural acceptance,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the pattern of acculturative stress development. We also examined the difference in stress outcomes including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between the identified patterns. The participants were 1,376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who participated in the 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2, 3, 4th wave.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patterns of acculturative stress development. The impact of stress moderating resources were examined using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variance followed to prove the difference in stress outcomes. The results demonstrated three distinct classes of acculturative stress development: increasing, decreasing, and constant-low. Social support from family and friends and self-esteem predicted the constant-low pattern of acculturative stress developmen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adolescents'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between the stress patterns. Policy support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psychosocial development and social integration were all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al properties of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acculturative stress.

Key Words: acculturative stress, multicultural adolescents, stress process model,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투고일: 2019. 3. 8, 심사일: 2019. 5. 3, 심사완료일: 2019. 5. 15

*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